

## 무너지는 현수막 업황에 실사출력 업계 활로 마련 분주

디지털 광고 특세에 시장 위축... 환경 이슈로 정부 규제도 강력

굿즈·홈데코·아트웍 등 새 시장으로 발길... 장비업체들도 출구 전략 모색



현수막을 금지하는 현수막 청정구역의 모습.

최근 실사출력 업계는 일선 출력업체부터 장비·잉크 공급사, 소재 공급사까지 시장 전반이 침체 상황에 빠져 있다. 실제로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늘상 나오던 앓는 소리와는 결이 다르다. 활로를 찾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실사출력 업계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현수막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출력업체들이 현수막 위주로 사업을 꾸려왔던 만큼 현수막 관련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현수막은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뛰어난 대중적인 광고물로서 적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매년 수많은 물량이 소비돼 왔다. 여러 규제 정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동안은 현수막 자체가 가진 메리트가 컸던 만큼 시장도 줄곧 성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는 광고물로서의 가치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다. 수년간 정

치·사회적 문제로 비난과 혐오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이 난립하면서 현수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데다 디지털 광고가 급성장하면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 수단도 많이 늘어났다.

강력해진 규제도 문제다.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용도의 현수막이든 아예 금지하는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 친환경 광고물만 사용하게 하는 '친환경 조례' 등의 정책을 통해 현수막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 청정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실사출력 시장이 현수막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큰데다, 디지털 광고의 성장에 따른 반대급부는 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사출력 시장 상황을 어렵잡아 볼 수 있는 지표중 하나는 장비 공급사들의 잉크 판매량이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장비 공급사 대부분의 잉크 판매량은 최근 수년간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장비 공급업체 A사 관계자는 "전년도에 잉크 판매량이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며 "특히 현수막 제작에 사용되는 수성잉크의 판매량은 급전직하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공급업체 B사 관계자 또한 "지금 수성 잉크의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당시에는 팬데믹이 끝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반등할만한 흐름 자체가 포착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수막 관련 시장이 위축되면서, 새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UV프린팅 및 텍스타일 프린팅을 활용한 '굿즈'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굿즈라는 명칭은 사실 꽤나 애매한 감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생활용품, 패션 액세서리, 기념·관촉물 등 소형의 디자인 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경우 K-팝, K-푸드 등

K-문화 열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굿즈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까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요즘 굿즈는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일종의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면서 기업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도 다양한 굿즈 제작·판매에 나서고 있다.

커스터마이징 벽지를 필두로 한 홈데코 분야도 실사출력 업계가 노려볼만한 주요 시장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옥외광고 분야에서 홈데코 분야로 방향을 전환해 성공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장비 공급사들 움직임도 이런 트렌드에 편승하고 있다. 굿즈 개발에 최적화된 DTF 프린터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장비들의 각축장이었지만 올해 애플, 마카스, 롤랜드 등 메이저 브랜드들도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런 장비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급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친환경 소재를 통해 환경 이슈로 위축되고 있는 현수막 시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분해 소재 현수막, 재활용 소재 현수막 등이다. 이런 제품들은 요즘 지자체들의 친환경 조례에 편승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텍스타일 기반의 전사 현수막도 현수막의 대안으로 새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템이다. 생분해 소재 등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기존 현수막 대비 업사이클링 활용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에서 현수막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신한중 기자

www.kointec.co.kr

**KOINTEC**  
(주)코인텍

27년 전통 점착 sheet & 필름제조  
UV·라텍스 전용필름

실사·수성 코팅지 솔벤트 라텍스 전용소재

칼라시트 (내부용/외부용) 인테리어 필름 창문용 (윈도우필름)

(주)코인텍 본사/공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하오개길 38 구.함양산업 TEL: 031764-1226-7 FAX: 031764-7186

취급점문의 응석천 전무이사 010.3710.5778

특수채널 · UV평판출력 **국내최저가**

**(주)덕산**

30년 기술 노하우 최신장비 보유 기업  
채널/갈바/스텐/스카시/싸인탑/실사/아크릴가공

**T. 02-487-4142**  
F. 02-487-4162 웹하드. signj / 1234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7번길 96

**SPT투데이**  
www.sptoday.com

**광고문의**  
**010-4234-9917**

all ways INCHEON

# 서울보다 넓고, 서울보다 가깝다.

수도권 광고의 숨겨진 블루오션, 인천에서 시작하세요.

## 버스 광고

인천 시내버스 내·외부  
인천 버스·택시 정류장  
고양·파주·김포·강화·광역버스

## 음성 광고

서울 수도권 시내버스 음성 광고  
서울 수도권 광역버스 음성 광고

## 옥상빌보드

우신빌딩 옥상 빌보드

인천 1호선 - 차이나타운, 파평역...  
인천 2호선 - 차이나타운, 파평역...

하루 300만 건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역사내 LED

광고 예산의  
150%  
효과

# ADMECA MEDIAOPEN

## 지하철 광고

인천 1호선 역사내 LED  
인천 2호선 열차내 편성

인천 2호선 종합안내도  
인천 1·2호선 방풍문

7호선 역사내 LED  
7호선 열차내 편성

i-SCREEN LED Display  
월미바다열차 차내 · 조명 · 스크린도어

**(주)미디어오픈 1644-5196 (주)애드메카 1533-0421**

# 올 가을 옥외광고업계 글로벌 리더들 서울로 모인다

‘WOO APAC 포럼’ 11월 5~7일 동대문스퀘어에서 개최

AI·자동화 등 OOH 관련 다양한 의제 논의... 한국의 첨단 OOH 기술·문화도 소개



지난 6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WOO 글로벌 총회에서 서울 포럼이 발표되고 있는 모습.



멕시코시티 총회에 참석한 우창훈 회장(왼쪽 세 번째) 등 한국OOH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옥외광고협회(World Out of Home Organization, WOO)가 오는 11월 5~7일 사흘간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APAC)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서울 포럼은 WOO와 한국OOH 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미디어 소유주, 애드테크 기업, 글로벌 브랜드 경영진, OOH 기관·단체 관계자 등 350여명의 OOH 업계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개최 계획은 지난 6월 멕시코시티에서 58개국의 OOH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WOO 글로벌 총회에서 공식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OOH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AI와 데이터 분석이

OOH 비즈니스에 통합되는 과정 △리테일 미디어의 부상 속에서 OOH의 역할 △옥외광고 효과측정 △자동화 기반의 광고 전략 △프로그래매틱 광고 거래 확대 등 최근 업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사례와 혁신적 정책 동향을 통해 OOH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창의성도 조명한다. 이를 통해 광고주의 미디어 전략에서 OOH가 향후 어떤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의 우수한 OOH 환경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국OOH협회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Free OOH AD Zone) 제도, 고속도로 야립의 디지털화 사례 등 혁신 규제 개선 정책과 세계

적 수준의 DOOH 인프라를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창훈 한국OOH협회장은 “이번 서울 포럼은 한국이 글로벌 OOH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OOH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고다드 WOO 회장은 “OOH 산업의 미래 변화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함께 이번 포럼을 주최하게 된 것이 기쁘다”며 “이번 서울 포럼이 전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OOH업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WOO는?

195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글로벌 옥외광고협회이자 비영리 단체다. 현재 전 세계 105개국 22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다. OOH 산업의 발전, 혁신, 국제 협력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사로는 미디어 소유주, 광고주, 미디어 대행사, 애드테크 기업, 광고 장비 제조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JCDecaux, Clear Channel, OUTFRONT Media, oOh!media, Ströer, Selve One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은 물론, 한국의 한국OOH협회(KOOHA), 한국옥외광고센터, 미국의 OAAA, 독일의 FAW, 호주의 OMA 등 각국의 대표 옥외광고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다.

# 옥외광고 한번에 2조원 날린 브랜드의 사연

아크테릭스, 히말라야서 진행한 초거대 불꽃놀이 퍼포먼스로 못매

중국의 안타스포츠가 인수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놀라우면서도 황당한 옥외광고 퍼포먼스를 벌여 하루만에 시총 2조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크테릭스는 지난 9월 19일 중국의 불꽃놀이 전문가 차이귀창과 협업을 이뤄 티베트 시가체 지역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성룡(昇龍) 쇼’를 진행했다. 총 52초간 발사된 1,050발의 불꽃은 5,000m에 달하는 용의 형상을 만들었다.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청정 지역인 티베트의 민감한 식생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아크테릭스측은 행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공식 사과에도 나섰지만 모회사 안타스포츠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한편, 아크테릭스의 브랜드 슬로건은 ‘자연과의 공존’이다.



아크테릭스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진행한 초거대 불꽃놀이 쇼.

# 부천시 옥외광고물 허가 부적정... 경기도 기관경고 조치

### 축조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만 400여건... 이격거리·고도 위반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는 부천시가 400건 이상의 옥외광고물 표시를 부적정하게 허가한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9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옥상간판 46건, 지주(기둥)이용간판 383건에 대해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내줬다. 옥상간판과 높이 4m 이

상 지주이용간판 등은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표시 허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천시내에 설치된 대부분의 지주 이용 간판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것이다.

특히 일부 지주이용간판은 이격거리와 높이 등 기준을 위반한 가운데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옥상간판중에는 해발고도(57.86m)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허가처리가 된 것도 있다.

경기도는 부천시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계자들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특히 해발고도 초과 간판은 관련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천시 해당 부서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데다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부서 변경 등으로 부적정 처리가 오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에 대한 엄중처분을 의미하는 기관경고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축조와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도내 지자체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간판 사고에 대한 안전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도의 방향성을 도내 지자체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광안리 해변도로 현수막 싹 사라진다

### 수영구, 남천해변~민락해변까지 1.5km 구간 ‘현수막 청정거리’ 설정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정당과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이 사라진다.

부산 수영구는 10월부터 광안리해변을 ‘현수막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천해변공원

에서 민락해변공원까지 광안리 해변도로 1.5km 구간을 청정거리로 설정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현수막의 설치가 금지된다.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통한 상시 단속·정비·철거도 이뤄진다. 운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전자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정

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부산시는 조치에 앞서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정당들은 광안리해수욕장이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후 기존에 게시했던 현수막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 관계자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구민과 옥외광고협회,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광안리해변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

세계 최고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행안부, 추석·APEC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 지자체-옥외광고협회 합동점검반 운영 등 통해 일제 정비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 연휴 기간 동안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현수막, 혐오·비방성 현수막, 일반 현수막 등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점검 대상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와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 현수막의 사전 신고 여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는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부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

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위반 현수막은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하고, 불응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간편 신고도 적극 안내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 앞서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합법적 제작·설치를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으



불법 현수막 안전신문고 포스터.

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다, 긴 연휴를 앞두고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을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 한울에서 광고기계



### 라텍스 프린터

냄새,유해물질없는  
친환경프린터  
프린터가 다 해주는  
최첨단자동프린터



### 슈마 컷팅기

메이드인 벨기에  
작업시작이 편하고  
원단이 틀어지지 않는  
세계최고 돔보컷팅기



### 수성 프린터

소재폭 자동측정  
미디어센서 장착  
4헤드/6헤드 선택  
국산피더장치기본



### 평판 컷팅기

메이드인 벨기에  
칼날 3축 자동 보정  
교체로 1분안쪽 OK  
세계최고 반컷팅틀



### 대형 평판UV

4\*8원장 직접출력  
보급형/고급형 선택  
10년 검증 메이커  
헤드분사프라이머



### 소형 평판UV

600\*900mm  
엡손 i1600헤드  
4칼라+화이트+바니시  
다양한 고부가가치



### 양면UV3300

코니카 1024i  
세계특허 양면프린터  
국내 50여대 판매  
양면 핀이 맞는  
유일한 프린터



### 양면UV2200

코니카 1024i  
세계특허 양면프린터  
국내 50여대 판매  
양면 핀이 맞는  
유일한 프린터

# 판매-AS 합니다!

**hanwool**



**1390레이저**

1300\*900mm  
아크릴비금속 레이저  
10mm까지 클린컷  
150w/180w/카메라

**hanwool**



**스텐갈바밴더기**

기본모델 20-200mm  
대형모델 20-400mm  
바이트컷팅(1자컷)  
용접채널 필수밴더기

**hanwool**



**1325레이저**

1300\*2500mm  
아크릴비금속 레이저  
20mm까지 클린컷  
150w/300w/500w

**hanwool**



**기본CNC**

1300\*2500mm  
카메라CCD장착가능  
튼튼한바디/강한배큘  
훌륭한 완성도/디자인

**hanwool**



**RF메탈관레이저**

1300\*2500mm  
아크릴비금속 레이저  
30mm 클린컷/마킹  
300w영국로핀/CCD

**hanwool**



**틀체인지CNC**

1300\*2500mm  
4슬롯/8슬롯/CCD  
튼튼한바디/강한배큘  
훌륭한 완성도/디자인

**hanwool**



**파이버컷팅기**

1300\*2500mm  
1500\*3000mm  
1.5kw/3kw  
갈바스텐간판제작

**hanwool**



**용접기**

테이블용접기 : 잔널용  
파이버용접기 : 갈바용  
다년간의 엔지니어  
경험으로 하자 AS  
빠른대처 가능

#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혼란 일단락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리어프리 의무 설치 대상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제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무장애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월 2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15평) 미만인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완화했던 의무화 기준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일부 업종 제외)·일정 매출 이하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장은 2023년 기준 약 596만개소다.

다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구나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하거나, 장애인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의무화 면제 대상이 된다. 일부 단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장에 직원이 아예 없는 무인매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의무화 면제 범주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리어프리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내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기존 법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 92억원을 과기부 몫으로 배정했다. 2차 추경 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사업' 몫으로 5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신한중 기자

신한중 기자

신한중 기자

# 익산시 간판사업 비리 간부 공무원 일부 혐의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 무시한 익산시에도 비판 쏟아져

## 계약·인허가 직무는 3년 이상 불가한데 피의자는 같은 부서에 장기근무

간판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자신의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차량 트렁크에서 수천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말에 구속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5급)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월 17일 열렸다.

A씨측은 이날 "업체로부터 향음 및 골프 접대를 받은 것과 수천만원의 현금 등 차량을 이동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인정한다"며 "다만 몇몇 공소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차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에서 올해까지 익산시 회계과에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46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자신의 차량에 현금 9,340만원과 상품권 853만원, 순금 3돈 등을 보관하다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차량 트



간판 정비사업 비리 공무원이 근무하던 익산시청 전경.

렁크에 있는 현금 등이 발각돼 압수될 것을 염려해 차량을 빼돌려 현금 등을 은닉하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지역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인사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에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구속된 A씨가 회계부서에서 무려 5년간 계약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계약이나 인·허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직무에서 장기 근무할 경우 특정 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커지고, 내부 견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 지침을 무시한 채 4년간 계약관리계장 보직을 유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회계과장으로 승진시켜 같은 부서에 머무르게 했다. 인사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이었고, 최근 5년간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적 통제와 행정적 상식 모두를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특정 업체가 4년간 수의계약으로 약 44억원을 몰아받은 배경에는 장기간 계약부서를 장악한 공무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인사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의계약 결제 권한 강화 △농공단지 직접 생산 확인 의무화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 제한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비리업체 영구 배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계약 과정의 절차적 개선책일 뿐, 문제의 핵심인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알맹이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신한중 기자

# 에pson 2헤드 수성프린터

- ✓ 고객을 생각한 출력품질 세팅
- ✓ 소재 인식 자동 미디어센서
- ✓ 에pson 정품 i3200 2헤드
- ✓ 책임질 수 있는 큰 회사
- ✓ 충분한 기술 엔지니어 팀

hanwool



hanwool **전문상담** 010-2513-0594 한철기 이사

포토뉴스



서울옥외광고협회 2025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회장 한상선)의 불법과고물 추방 결의대회특 겸한 2025 한마음가족체육대회가 9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의 국회둔치축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협회 산하 25개 구지부의 회원과 가족, 최영균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진, 배영춘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협회의 회장과 임원 등 모두 700여명이 참석했다.

족구와 축구 승부차기, 줄다리기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노원, 성북, 동대문구가 1, 2, 3위를 차지했다.

# 아이클릭아트, 'AI 콘텐츠' 전용 코너 정식 오픈

## 'PPT 500종' 템플릿 무료 배포하기도

스톡 콘텐츠 기업 아이클릭아트가 인공지능(AI) 이미지 전용 코너 'AI 콘텐츠'를 오픈했다. AI 콘텐츠는 ▲AI 포토 ▲AI 일러스트 ▲AI CG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전용 아이콘을 추가하여 기존 스톡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구분했다. 2023년 5월 AI 활용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약 2년만에 15만 개의 AI 이미지를 업데이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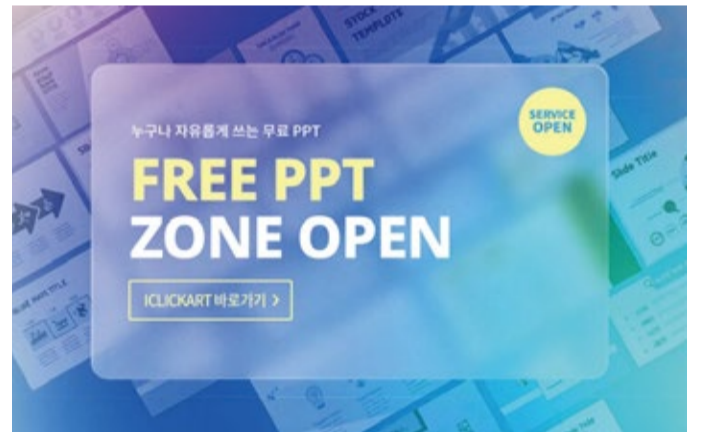
사용자는 카테고리별 특성에 맞는 AI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카테고리는 실제 촬영과 유사한 인물·소품이 있는 AI 포토, 핸드 드로잉·배그라운드 등 다양한 스타일의 AI 일러스트, 3D 그래픽과 캐릭터 이미지를 선보이는 AI CG로 나뉜다.

또한, 신규 코너에서 사용자는 최대 6,000 픽셀의 고품질·고해상도 AI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상세페이지, 배너, 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아이클릭아트는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아이클릭아트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직장인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PPT 500종' 템플릿을 무료 배포한다. 이번 무료 업데이트는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PPT 500



종 템플릿을 무료로 전환한 것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에 공개된 'PPT 500종' 템플릿은 ▲비즈니스 ▲교육 ▲의료 ▲일반/다목적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불필요한 시각 요소를 최소화해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텍스트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인

템플릿을 선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모든 템플릿은 저작권 검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기획서, 과제, 발표 자료부터 업무보고서, 제안서 작성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는 현재 약 1만8,000컷의 무료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 PDF 파일 휴대폰 전송 서비스 안내

SP투데이가 오프라인 매체인 인쇄신문(SP투데이),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홈페이지(www.sptoday.com)에 이어 **모바일 매체(PDF 파일) 휴대폰 전송**을 시작합니다.

PDF 파일 수신을 원하시는 독자는 010-4234-9917번에 '파일 수신 희망'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4234-9917, 02-336-9940

### SP투데이

2002년 12월 2일 창간  
(2002년 10월 7일 등록 서울다-060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최병열 | 인쇄인 이승훈

www.sptoday.com

(0575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23 유니빌딩 6층 (주)SP투데이 <월간>

편집국 02)336-9940

팩스 02)336-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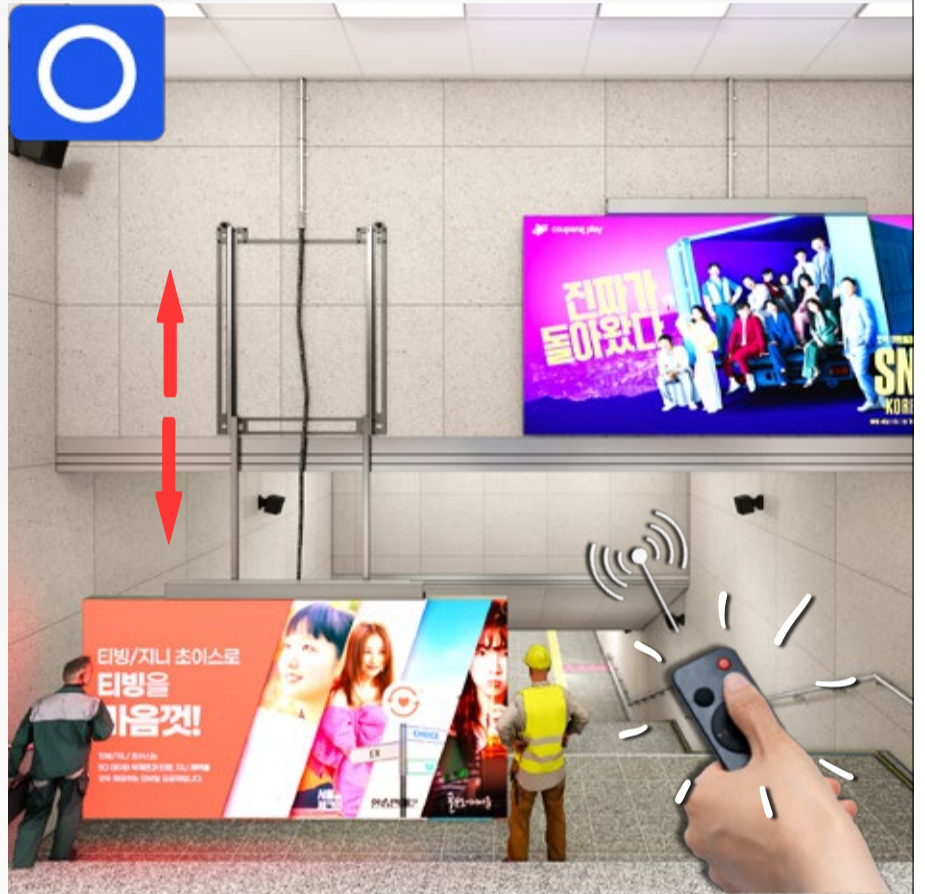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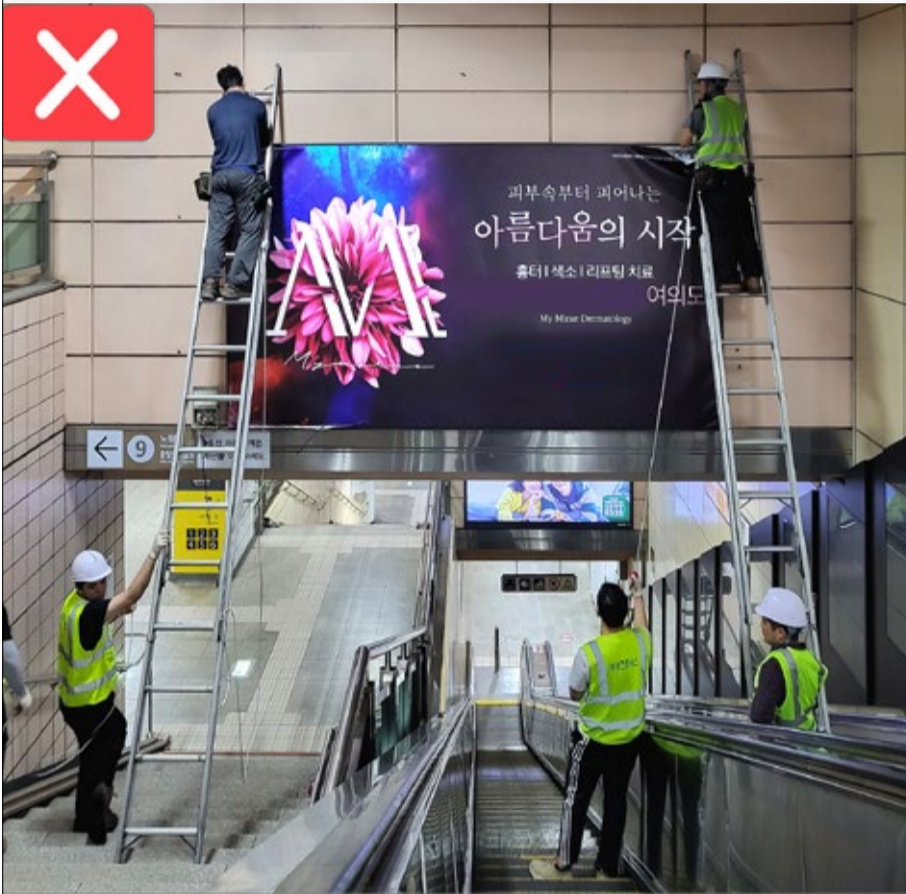
광고·구독 문의 및 신청 010-4234-9917

구독료 연간 5만원 국민 : 293801-01-070728 입금계좌(예금주 : SP투데이)

# 수직 이동형 광고판 승강장치

“이젠 사다리도, 비계도 필요 없습니다!” 리모컨 하나면 OK!

광고 출력물 교체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 국내 최초 특허 보유!

### 수직 이동형 광고판 승강장치만의 특징점!

- 사고예방 ----- 산업재해 고위험군인 사다리 추락사고 방지
- 비용절감 ----- 전문장비 또는 인력이 필요치 않아 비용 절감
- 시간단축 ----- 야간에만 가능했던 작업이 주간에도 가능
- 장비 간소화 -- 리모컨 하나로 별도의 고소장비 없이 게, 폐첩 가능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해방

- ✓ 반영구적 맞춤 설계  
각 현장별 실사와 맞춤 설계로 최초 설치 후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전도 및 추락 방지 설계  
높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광고판이 전도 및 추락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 유지보수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쉽게 유지보수 및 A/S가 가능합니다.
- ✓ 비상시 전원차단 기능 장착  
비상시에 동작중인 광고판을 전원차단 기능으로 즉시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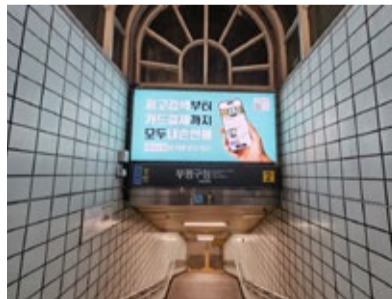
이런 곳에 수직 이동형 광고판 승강장치를 설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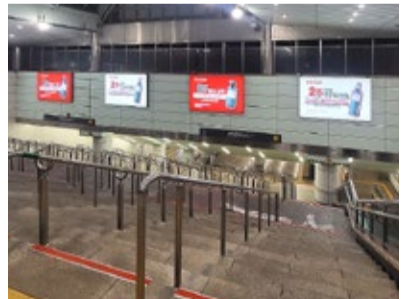
공항 및 버스터미널 광장



기차역, 지하철역 대합실



출입구 상단 캐노피



계단 캐노피

# 세종시,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 허용

간판 총량 규제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은 제외



세종시 행복도시 내 건물들의 모습.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의 상가 건물 벽면에 광고매체를 설치해 타사광고를 집행하는 게 가능해졌다.

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8일자로 의결하고 같은 달 29

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있는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타사광고는 건물 입점 업체와 관련된 간판(자사광고)과 달리, 입점 업체와 관련없는 상업적 광고를 말한다.

또 타사·공연 홍보물 등의 광고물은 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했다.

타사광고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의 벽면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 이내여야 하고,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단 기존 옥상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만 가능하다. 별도의 거리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4층 이상의 건물이면 벽면 광고매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측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임대 공실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건물주의 관리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상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지역 내 공실 비율이 높아 시에는 이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광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 이런 설명과 달리,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물주 입장에서만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이나 관리비 경감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타사광고 허용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보다는 외부 대형 프랜차이즈나 광고대행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타사 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준을 높여 거리 미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광화문 자유표시구역 2호 매체 'KT 스퀘어' 점등

건물 좌우측 감싸는 듀얼 커브드 스크린 구조... 전체 면적은 1,770㎡



KT 광화문 사옥에 구축된 'KT 스퀘어'의 모습.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스퀘어의 2호 매체가 지난 9월 9일자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규 매체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외벽에 조성됐으며 매체 명칭은 'KT스퀘어'다. 매체의 형태는 두개의 대형 커브드 스크린이 건물의 양쪽 측면을 감싸고 있는 형태다. 단일 건물에 두 개의 커브드 스크린이 적용된 사례

로는 국내 최초다.

두 개 면적을 합하면 1,770㎡에 이른다. 1기 자유표시구역의 대표 매체인 강남구 코엑스의 케이팝스퀘어가 1,620㎡인 것과 비교하면 단일매체로서는 놀라운 규모다.

KT측은 이 듀얼 커브드 스크린 구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3D 아나모픽 영상을 활용한 호랑이가 양쪽 스크린을 오가는 등의 방식이다.

화면 상단에는 한국 전통 건축의 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광화문의 역사성·상징성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조화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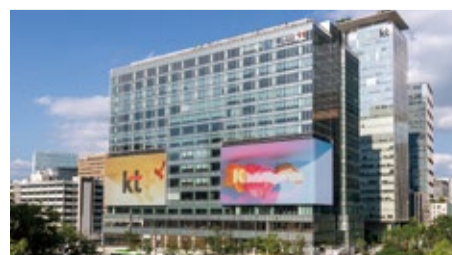
KT스퀘어에서는 상업광고를 비롯해 공공 콘텐츠,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상시 운영된다. 특히 KT의 AI와 ICT 기술을 활용해 시간대·계절·날씨 등의 데이터 기반 실시간 맞춤형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게 된다. 광고는 KT의 옥외광고 플랫폼 '바로광고'를 통해 운영된다. 광고주는 바로광고에서 광고 청약부터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 성과 리포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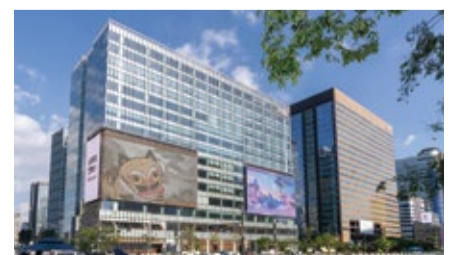
또 국내외 아티스트와 협업한 미디어아트 전시, 공공 시민 참여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가동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상업광고와 공익 콘텐츠는 7대 3 비율로 운영된다.

KT 관계자는 "KT 스퀘어는 광고매체로서의 역할을 넘어 광화문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도심 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을 지속 제공해 광화문이 새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



#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대중교통 매체광고 양진텔레콤이 선도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음성광고 | 서울시내버스 내부 인쇄물 광고  
234호선 전동차내 음성광고 | 5678호선 전동차내 음성광고  
1234호선 승강장 음성광고 | 1234호선 디지털보드  
SRT수서·동탄·평택지체 | KTX 익산·정읍역 광고

[ 함께할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

경력, 나이제한 없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의 소유자

|주|양진텔레콤  
**YANGJIN**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1길 2 (잠실동, 양진빌딩) T 02.412.4130 F 02.412.4139 www.yangjintel.com

업종별 옥외광고 크리에이티브 - 라면 옥외광고

# ‘K-라면’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다!

## 전 세계 주요 상권서 상징성높은 옥외 매체 활용해 홍보

K-라면의 위상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수산물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8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9억7,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동기보다 22.3%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전체 수출액(10억1,000만달러)에 근접한 수치다. 중국과 미국에서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유럽·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이어졌다. 독립국가연합(CIS)에서는 수출액이 50% 이상 급증했다.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등 우리 라면의 매운맛이 세계적 돌풍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도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K-라면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특유의 맛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도 주효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라면 기업들은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해 왔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 기업들의 최근 옥외광고 전략은 글로벌 시장의 첨단으로 들어가 브랜드와 제품을 알리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트렌디한 상권에 대형 옥외광고를 집행한다든가, 세계적으로 상징성높은 매체들을 활용해 바이럴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런 광고 전략은 보통 식품기업보다 글로벌 IT기업이나 명품 브랜드들이 주로 활용하는 형태인데, 우리 라면 기업들의 달라진 위상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한중 기자



농심이 신라면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상버스(Vaporetto)에 집행한 래핑 광고.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서 연간 3,000만명 이상 방문한다. 이곳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인 수상버스 래핑광고를 통해 신라면의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했다.



오뚜기가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판에 집행한 광고. 포수 뒤편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체의 'JinRamen(진라면)' 광고가 나온다. 해외에서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다. 특유의 응원 문화가 화제가 되면서 미국, 캐나다 등 130개 국가로 한국 야구가 생중계됨에 따라 야구장 광고는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에게 좋은 홍보 채널이 되고 있다.



삼양식품에서 사명을 변경한 삼양라운드스퀘어가 글로벌 브랜드들의 무대인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송출한 불닭볶음면 광고. 'WANT SOMETHING HOT?'이라는 메시지와 시네마틱한 연출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강조했다.



농심이 신라면 홍보를 위해 미국 LA 베니스비치 해변가 벽면에 설치한 그래피티 광고.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그룹 '그래피티 USA'와 협업한 멋진 작품으로 이슈를 만들어 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로 서울 성수동에서 전개한 이색 과오고. 두 건물 사이에 긴 커다란 오렌지색 공에 'Where is Squar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이 공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인근의 팝업스토어로 안내한다.



농심이 일본 삿포로 눈축제의 빙상장에 설치한 신라면 옥외광고. 광고에 일본 전통의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친화적 마케팅을 전개했다.



일본의 라면(라면) 브랜드 마루찬(MARUCHAN)의 옥외광고들. 국내 라면 기업들의 광고와 달리 패션 브랜드의 화보처럼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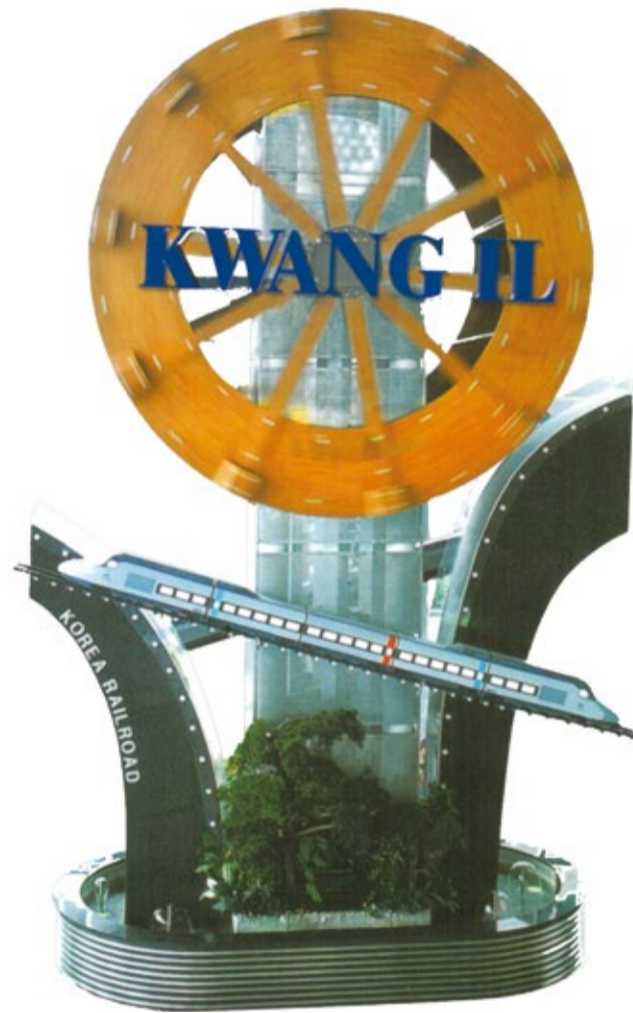


독일의 식품기업 크노르(Knorr)가 인도 뭄바이에서 집행한 라면 광고. 두 개의 빌보드를 활용해 재미있는 화면을 선보였는데, 독일기업 광고임에도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델이 나온 것이 흥미롭다.



**(주) 광일**  
KWANGIL CO., LTD.

Advertising Culture Leader  
**KWANG IL**



**광고 50여년!**

오직 이 길만이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걸어온 50여년의 광고 인생길  
광고인의 자긍심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광일프라자 / <http://www.kiad.co.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길 23 광일빌딩 / TEL : 02)2248-2939 / FAX : 02)2242-0037

# 한국입손, 첫 DTF 프린터 'SC-G6040' 출시

탁월한 출력품질 강점... 정렬 오차 없고 작은 글씨도 선명히 표현  
반복 작업에서의 안정성과 편의성 강점... 조작도 간편



한국입손이 출시한 첫 DTF 프린터 'SC-G6040'.



잉크'는 잉크 소모가 적으면서도 고품질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용량의 밀폐형 1.6L 팩 타입으로 공급된다. 국제 표준인 OEKO-TEX, ECO PASSPORT, CPSIA 등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잉크인 만큼 유아용 상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보여준다.

DTF 프린터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잉크가 굳고 침전되는 현상도 최소화했다. SC-G6040의 화이트 잉크 순환 시스템은 프린팅중에도 잉크 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잉크 침전을 막아 작업중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지관리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노즐 자동 진단·클리닝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 있으며, 교체 가능한 패브리 와이퍼를 탑재해 프린터 헤드 표면이 깨끗하게 관리된다.

자가 정비가 용이한 것도 특징인데, 일반적인 DTF 장비의 경우 캡스테이션과 흡입 캡이 하나의 부품에 결합되어 잦은 청소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SC-G6040은 각각 흡입 캡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캡 청소와 교체가 쉽다. 따라서 청소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편리하며 유지관리 비용도 줄어든다.

벽 밀착 설치가 가능한 컴팩트한 디자인에 전면부 조작 시스템을 통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클라우드 기반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Epson Cloud Solution PORT) 등 최신 기능이 적용돼 원격 작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리프 소프트웨어는 'Epson Edge Print Pro'가 탑재됐다. 컬러 매칭과 인쇄 데이터 관리가 간편하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입손 관계자는 "DTF 프린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노즐 막힘이나 정렬 불안정 등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G6040은 자동 흡입 캡 클리닝 시스템과 독자적인 화이트 잉크 순환 구조를 통해 안정성 저하를 억제하기 때문에 같은 도안을 수백 번 출력하더라도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중 기자

문의 : 에코프린 031-701-9702

# 로얄소브린, 평판 롤합지기 신제품 'FA-1400M' 출시

미열 기능 탑재로 더 쉽고 편리하게 고퀄리티 합지 작업 가능

로얄소브린이 평판 소재 합지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평판 롤합지기 신제품 'FA-1400M'을 선보인다. 평판 롤합지기는 까다로운 평판 소재의 코팅·합지작업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요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장비다.

신규 출시된 FA-1400M은 작업 폭 1,400x2,400mm 제품으로 최대 70mm 두께의 소재까지 합지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크릴·유리·철·포맥스·폼보드 등 다양한 소재·제품에 대응할 수 있다. 기존 제품보다 작업대가 넓어졌기 때문에 더 편안한 작업이 가능하며, 합지작업이 없을 때 작업 테이블로 활용하기도 좋다.

이번 신제품의 중요 특징중 하나는 새롭게 적용된 미열 기능이다. 합지 롤러

에서 일정 수준의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합지 작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겨울철 등 낮은 온도로 소재가 굳는 경우에도 작업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 롤러의 온도는 3단계(콜드저온·고온)로 조절된다.

작업대 표면은 견고한 강화유리로 제작돼 소재 오염없이 깔끔한 합지작업이 가능하며 직경 130파이의 고밀도를 프레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압착률이 높아 작업물의 퀄리티도 우수하다. 롤러의 가압력이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소재에 따라 최적화된 밀착도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백화 현상이나 기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용방법도 쉬워 초보자도 몇시간

의 교육이면 완벽한 퀄리티의 작업물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시간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

로얄소브린 관계자는 "신제품은 미열 기능으로 기존 제품보다 작업 편의

성이 우수하며, 특히 1인 작업에 최적화된 설계를 반영해 초보자도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며 "인건비 절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문의 : 070-4322-2015



로얄소브린의 평판 롤합지기 신제품 'FA-1400M'.

대형채널



아크릴면발광



티타늄채널(골드스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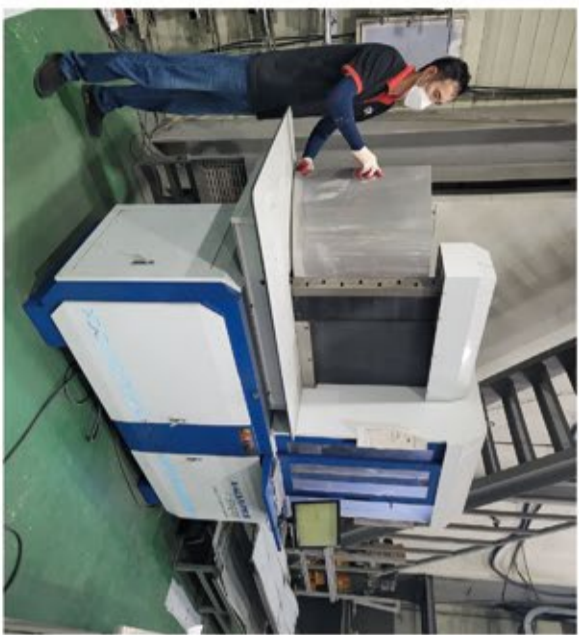


# 오케이엔드럭

[www.okinc.co.kr](http://www.okinc.co.kr)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88(오정동, 739-6)  
Tel. 032)674-0000 Fax. 032)677-1110

대형채널장비(600mm벤딩가능)



본사전경



전 · 후광채널



에폭시, 일체형 채널



# 사인과 공간, 예술을 출력하는 ‘해피프린트’

## 고퀄리티 요구하는 아트 전문 출력업체로 뛰어난 실력 ‘정평’ HP ‘라텍스 R530’ 올인원 프린터 신규 도입하며 경쟁력 강화



해피프린트가 도입한 HP R530 올인원 프린터.

경기도 시흥시에 본사를 둔 해피프린트는 차별화된 감각과 실력으로 사인은 물론, 아트 프린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사출력 업체다. 디자이너 출신인 최주식 대표에 이어, 디자인을 전공한 아들 최재우 과장까지 2대에 걸쳐 축적된 디자인 노하우와 기술력은 업계에서도 정평을 얻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HP의 올인원 프린터 ‘라텍스 R530’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 ▲작가와 브랜드들이 신뢰하는 실력... 문화재 복원사업도 참여

해피프린트는 1993년 옥외광고업으로 시작해 아트 프린팅과 흠데코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07년 아트프린팅 분야의 가능성을 보

고 업역을 확장한 결과, 지금은 수많은 작가들과 협업하고 유명 드라마와 영화 미술팀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단단한 입지를 쌓아 올렸다.

많은 기업·작가들이 해피프린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뛰어난 컬러 매니지먼트와 ICC 프로파일 기술에 있다. 프린터와 미디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R530으로 복원한 창덕궁 대조전 한지벽지 사례.

엑스라이트(X-rite) 측색기를 활용해 가장 최적화된 ICC 프로파일을 개발해 사용한다. 이를 통해 캔버스, 인조가죽, 파인아트지, 벽지 등 어떤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업계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끌어 낸다고 회사측은 자부한다.

특히 올해는 신규 도입한 ‘HP 라텍스 R530’을 활용해 국내 보물 제816호인 창덕궁 대조전의 내전 문양지를 한지로 출력해 시공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화재 관련 작업의 경우 컬러와 디테일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검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작업으로 꼽힌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명품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 호텔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최우선으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신뢰하는 출력업체로 자리매김했다.

### ▲일조 작가와 협업한 흠데코 브랜드 ‘텔레파시’ 론칭

해피프린트는 다양한 작가들과의 콜

라보 작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발판으로 최근에는 친환경 흠데코 브랜드 ‘텔레파시(Telepathy)’를 론칭했다.

텔레파시는 회화 작가이자 리빙 전문 인플루언서인 일조 작가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독자 브랜드다. 벽지와 커튼, 디자인 거울, 캔버스 액자 등 생활용품에 예술적 감성을 더한 친환경 상품군으로 관련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라텍스 R530’을 신규 도입한 것은 이 텔레파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흠데코 상품 위주인 만큼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퀄리티를 구현하는 평판 출력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평판 출력과 롤투를 출력 모두가 가능하면서도, 발군의 퀄리티와 친환경 특성을 갖춘 R530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최주식 대표는 “지금 실사출력은 기술과 예술, 친환경 아이디어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라텍스 530은 이런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주요한 솔루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일조 작가와 협업한 흠데코 브랜드 텔레파시 제품들.



## 미니 인터뷰

### “축적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실사출력의 새 가치 만들어 갈 것”

지금의 해피프린트를 일궈낸 주역은 최주식 대표와 부인인 김유순 실장이다. 지난 9월 19일 ‘해피프린트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만난 이들에게 회사의 비전과 신장비 도입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 -라텍스 R530을 도입한 배경은.

▲ 우리는 HP의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우리의 작업에서는 특히 컬러 표현과 일관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비를 HP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R530

또한 출시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품 시연 결과 출력 퀄리티와 활용성면에서 우리의 작업에 최적화된 프린터라고 판단했다.

#### -장비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

▲우리처럼 넓지 않은 공간에 많은 장비가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는 대형 평판 프린터만을 위해 공간을 소모하기가 쉽지 않다. 올인원 R530은 롤투를 프린팅은 물론이고 그래픽 거울, 디자인 액자, 허니컴보드 등의 평판 소재 출력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폭넓은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래픽 표현에 있어 HP

의 이전 제품에 비해서도 퀄리티가 개선됐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실제로 이 장비를 활용해 창덕궁 대조전의 한지 벽지 작업을 진행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만큼, 만족도는 더할 나위 없다.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실사출력업은 기술과 예술, 친환경을 통한 지속성 등의 가치가 결합된 ‘공간 브랜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조 작가와의 콜라보 브랜드 ‘텔레파시’도 이런 비전의 일환이다. 사인도 그렇지만, 특히 아트 프린팅과 흠데코 분야는 오



해피프린트 최주식 대표(왼쪽)과 김유순 실장.

랫동안 쌓인 노하우와 색채 감각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작업이 많다. 우리만의 기술력과 2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통해 실사출력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려고 한다.

**관공서 선호도 1위 제품**

**여성기업-우선구매**

1988년 - 각목과 노끈이 필요 없는 탱탱 걸이대 특허획득 (세계 최초)  
 2007년 - 친환경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동게시대 특허획득(세계최초)  
 2011년 - 전자동/반자동 겸용으로 작동하는 겸용게시대 출시(세계최초)

# 디자인형 현수막게시대

게시대 관리의 편리함, 도시미관의 향상, 지역 컨셉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작하여 드립니다~!



**전반자동겸용** 풍속감지자동승하강, 버튼 핸들겸용  
**반자동게시대** 핸들형, 고장 잘 없어요  
**저단형게시대** 찌그러지지 않아요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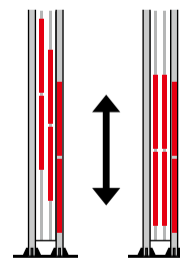
- 현수막 하강시 그대로 내려옴
- 공간이 협소하여도 설치가능
- 기둥내에서 움직이므로 보행자 위험없음
- 현수막이 그대로 내려와 탈부착 용이

**편리성**

- 핸들 돌릴때의 부드러움 (유치원생도 돌릴 수 있습니다)
- 손쉬운 현수막 탈부착
- 조립해체가 간단하여 이전설치가 쉬움

**다양성**

- 디자인 게시대 제작
- 나무무늬목
- 열처리칼라도장
- 스텐판 등



- 생산 제품 종류
  - 각종 현수막 게시대 (주문제작가능)
  - 게시판, 안내판 등

- 남신테크 보유 지적재산권
  - 특허증 16건
  - 의장 및 상표 등록증 4건

※ 위 제품들은 특허등록된 제품으로 무단 제작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휴프라이미, 기존 현수막 대체하는 '전사 현수막' 솔루션 전개

수성 현수막 대비 색 재현성 우수... 재활용 특성도 뛰어나  
파격적인 가격대 공급... 시장 접근성 높여 새 흐름 조성



휴프라이미의 전사 현수막 솔루션.

휴프라이미가 기존 수성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사 현수막' 솔루션을 전개한다. 전사 현수막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색기와 발색기 일체형 프린터, 전용 전사 잉크(ST1000N) 등의 통합 솔루션 공급에도 나선다.

환경 문제 등 여러 제약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수막 시장에 전사 현수막이 새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취하고 나선 발빠른 대응이다.

텍스타일 프린팅을 활용한 전사 현수막은 특유의 발색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일부 시장에서는 꾸준히 호응을 얻어왔다. 실제로 전사 현수막은 색이 깊고 선명하게 표현되는데다 잘 바래지도 않는다. 습기와 바람에도 강해 옥외

환경에서의 내구성도 높다.

다만 일반 현수막 대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수성 현수막처럼 대중적인 솔루션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휴프라이미는 전사 현수막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현수막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프린터와 잉크, 소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가능한 회사만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원가를 대폭 절감한 결과다.

휴프라이미 관계자는 "전사 현수막은 고급스러운 표현력, 내구성, 관리 용이성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현수막 대비 장점이 많다"며 "좋은 가격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최적의 가격으로 최고의 제

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활용에 있어서도 전사현수막은 강점이 크다. 수성 현수막은 폴리에스터 직물 표면에 실리카 코팅층을 입혀 제작하기 때문에 가방·천막 등으로 업사이클시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 소재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은데다 코팅층이 박리되면서 발생하는 코팅 분진 등의 문제도 있다.

반면 전사 현수막은 원단 자체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 상대적으로 고급스럽다. 잉크도 원단 표면이 아닌 섬유 깊숙이 침투되는 방식으로 선명한 색이 유지된다. 따라서 사용을 마친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할 때도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현수막 재활용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지금, 아주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분석이다

신한중 기자

# 코스테크, 스위스큐프린트 한국 론칭에 속도

스위스 본사 찾아 한국 시장 진출 전략 본격 논의

코스테크가 스위스큐프린트 디지털프린터의 한국 론칭 속도를 높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 8월 스위스큐프린트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9월 1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스위스큐프린트 본사를 방문해 주요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현지 경영진과 함께 논의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는 스위스큐프린트의 플래그십 모델인 3.2m 폭 UV프

린터 쿠두(Kudu), 2.5m 폭의 다목적 플랫폼 프린터 임팔라(Impala), 롤투롤 UV프린터 카리부(Karibu) 등의 장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데모센터에 쿠두를 전시하고 시연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빠른 성공 사례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시장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위스의 스위스큐프린트 본사 모습.

## 미니 인터뷰 - 코스테크 민준일 부사장

### “장인의 국가 스위스의 자부심 고스란히 담긴 명품 실감”

-현지에서 살펴본 스위스큐프린트는. ▲ 본사와 생산 현장에서 느낀 점은 스위스 기업답다라는 것이다. 단순히 디지털프린터 제조·판매 기업이 아닌, 장인의 국가 스위스의 자부심과 철학을 실컷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철저한 QC, 지속적인 연구개발, 책임 있는 서비스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철학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브랜드의 주요 특징점에 대해 설명

한다면.

▲ 무엇보다도 제품의 신뢰성이다. 스위스큐프린트 제품의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일례로 QC 과정에서 단 하나의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출고를 중단하는 것이 이 회사의 원칙이다.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 정책은 국내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FAQ와 원격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다.

고장률 자체가 극히 적은데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0.0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 효율이 높다.

- 스위스큐프린트 론칭에 대한 향후 계획은.

▲ 단순히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넘어 스위스큐프린트의 선진화된 시스템 자체를 한국시장에 잘 이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회사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체계는 한국 시장에서도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본다. 고객들이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코스테크 민경원 대표와 민준일 부사장이 현지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비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내 데모센터 등을 통해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세영씨앤씨그래픽스 HP Sign&Graphics 부분판매/서비스 25년 연속1위!!

# HP 4.2세대 Roll & Flatbed 하이브리드 화이트 출시!!

세계 No.1 Real White/White 황변X/White 유해 공기오염X/  
White 유해 경고라벨 필요X/White 냄새X

**NEW!**



## HP 하이브리드 라텍스 R530 (1,626폭)

- ✓ 4 X 8 사이즈 평판 출력 세계 No.1 품질
- ✓ 출력속도 시간당 31㎡(4 Pass 기준)
- ✓ 헤드 높이 최대 50.8mm, 고퀄리티 화이트 잉크 탑재 아크릴, 폼보드, 포맥스 등 다양한 소재 다이렉트 출력
- ✓ HP 픽셀 컨트롤로 최상의 색상 제공

## HP 라텍스 730&830 프린터 (1,626폭)

- ✓ 왜 HP라텍스 4.2세대 인가?
- ✓ 고부가가치 가성비 작업으로 비즈니스 향상
- ✓ 납기일 걱정없는 생산성과 라텍스 오버코트 잉크의 효율성
- ✓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성

**NEW!**



**ZUND** 한국총판  
Graphics & Packaging



## ZUND G3 스위스 디지털 재단기

- ✓ 실사 업체의 큰 고민, 후가공을 완벽하게 해결!  
(후가공 인원 4명 이상 대체 가능)
- ✓ 타사 대비 성능 · 속도 · 정밀도 · 다양성  
2배 이상 경쟁력 확보
- ✓ [가공품목]  
POP, 시트지, 폼보드, 포맥스, Box 포장,  
아크릴, 정밀 가공분야 외

(주)세영씨앤씨그래픽스

라텍스 호환 소재 **국내 최다 보유**  
라텍스 전용 플렉스(조명용) 세계 최초 개발 및 국내 총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4  
현대테라타워 가산DK 10층 1010호  
**문의 및 상담\_Tel. 02-2273-4211**

# 한국롤랜드디지, 3D 엠보싱 전용 프린터 'DA-640' 공개

## 스트럭처 잉크 활용해 최대 2mm의 고퀄리티 엠보싱 패턴 출력



한국롤랜드디지가 출시한 '디멘스(DIMENSE)' 수성 프린터.

한국롤랜드디지가 입체 텍스처 효과 연출에 최적화된 '디멘스(DIMENSE) DA-640' 수성 프린터를 선보인다.

DA-640은 커스터마이징 흡데코 및 아트 프린팅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수성 장비다. 가장 큰 특징은 출력물의 표면에 3D 엠보싱(Embossing) 패턴 등의 입체 텍스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이런 입체 텍스처를 구현하는 장비들은 존재했지만 본래의 용도를 보조하는 수준이었다. 신규 출시된 DA-640은 이런 입체 텍스처 출력 전용으로 개발된 프린터로 가죽·목재·금속 등의 질감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입체 효과가 발생하는 위치를 정밀 제어할 수 있게 개발된

듀얼 프린트 헤드가 적용됐다. 또한 C·M·Y·K 컬러 잉크와 함께 독자적인 스트럭처(Structure) 잉크가 탑재돼 최대 2mm 높이의 엠보싱 패턴 텍스처를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다.

잉크는 UL, GREENGUARD Gold 등의 인증을 완료한 친환경 제품이며, 스트럭처 잉크 또한 부틸렌글리콜이 없



DA-640으로 개발된 입체 텍스처 출력물들의 모습.

어 안전성이 높다. 잉크팩 또한 기존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82% 줄인 500ml 용량의 종이 카트리지로 공급돼 친환경 특성을 높였다.

DA-640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멘스 미디어'도 주목해 볼만하다. 부직포와 직물 기반의 캔버스 소재 등으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PVC-free 기반으로 만들어져 환경친화적이고 냄새와 이염이 없다. DA-640과 디멘스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커스터마이징 벽지와 고급 책자 표지, 예술 작품, 인테리어 제품 등 다양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쉬운 사용법도 장점이다. 널리 사용되는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간단한 디자인에서 엠보싱 레이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Roland DG Connect Designer DIMENSE'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최신의 'VersaWorks 7 RIP'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

게 세부적인 인쇄 환경을 설정하고 고품질의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

DA-640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출력물 위에 전용으로 개발된 친환경 페인트를 칠해 차별화된 분위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픽없이 엠보싱 효과만을 출력한 미디어에 이 페인트를 칠하면 디지털 인쇄와는 다른 고전적이면서 창의적인 출력물을 만들 수 있다.

롤랜드디지 글로벌 영업·마케팅 부문 사장 류고 니무라(Ryugo Nimura)는 "최근 상업매장과 예술공간에서는 커스터마이징 벽지 및 데코 상품을 요구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DA-640은 이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출력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중 기자

문의 : 02-2634-9777

# 프린티드, UV DTF 전용 프리미엄 필름 출시

## 접착성·내수성 대폭 개선... 물 세척에도 강해

프린티드가 UV DTF(Direct to Film) 프린팅 전용의 프리미엄 필름을 출시했다.

프린티드의 프리미엄 필름은 기존 UV DTF 필름의 단점으로 꼽혔던 부착력 저하, 내수성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한 제품이다. 잔여물이 남지 않으면서도 잉크가 단단히 붙어 있도록 접착 안정성을 높였으며, 마모 저항 성능과 내수성도 보완돼 출력 이미지의 내구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프린티드측에 따르면 출력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액세서리 등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네임스티커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유용하다. 잔여 접착제가 소재에 남지 않도록 고안

됐기 때문에 보다 깔끔한 그래픽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접착력·내수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물 세척 환경과 식기세척기 사용에 있어서도 출력물을 손상없이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컵·텀블러·식기류 등 반복적인 물세척이 필요한 생활용품 개발에도 효과적이다.

출력면으로 사용되는 A필름과 라미네이팅에 사용되는 이형 B필름이 세트 단위로 판매되며, 필름 규격은 60cm×100m, 30cm×100m 2가지다. 회사측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굿즈·라벨링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프린티드 관계자는 "우리 신제품은 UV DTF 프린팅의 해결 과제였던 내

수성과 접착력 문제를 함께 해결한 결과물"이라며 "품질 최우선의 전략을 통해 관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31-8042-4798



프린티드가 출시한 프리미엄 UV DTF 필름이 적용된 사례.



# ‘시민 편의에 정책 광고까지’… 공공 휴지통의 대변신

## 안양시, 디지털광고판과 자동소화장치 결합한 ‘스마트 가로 휴지통’ 구축



안양시가 지난 9월 시내 30여곳에 설치한 ‘스마트 가로 휴지통’.

지금 거리에서는 휴지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관리상의 난제와 도시 미관 차원에서 휴지통 자체를 없애왔던 까닭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 휴지통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양시는 최근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와 주요 도로변 등 30곳에 ‘스마트 가로 휴지통’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 가로 휴지통은 광고판과 휴지통을 접목한 형태로 높이 160cm, 폭 65cm의 회색 박스 모양으로 제작됐다. 하단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지만 상

단에는 약 50인치 크기의 디지털 스크린을 달아 시정 소식, 지역 정보 등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재는 시의 주요 정책과 생활정보, 공공 임대·분양 소식 등을 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추후에는 구정 소식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홍보하는 상업 광고매체로서도 활용도 구상되고 있다.

스마트 가로 휴지통에 탑재된 또 다른 주요 기능은 화재 센서를 통한 자동 소화 기능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 휴지통을 철거한 것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 끄지 않

고 버려진 담배꽂초로 인해 휴지통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는 실제로도 자주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안양시의 스마트 가로 휴지통은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하는 자동소화장치가 탑재돼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스마트 가로 휴지통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반응을 살펴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LG전자, 장애인 편의 극대화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 미국 시장에서 첫선… 연내 국내 시장 출시 계획

LG전자가 휠체어 이용자나 시·청각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했다.

지난 2023년 출시된 1세대 키오스크가 큰 글씨와 선명한 화면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세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음성 안내와 대화형 AI 솔루션까지 탑재하는 등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미국 접근성 컨설팅 전문기업 ‘테크 포 올’(TFA)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선을 보인 뒤 올해 안에 국내에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장애

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에 중점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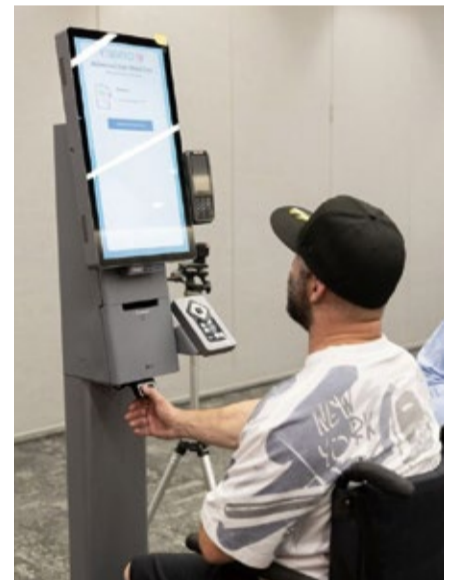
우선 휠체어 이용으로 눈높이가 낮은 이들도 편리하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고휘도 저반사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조명 높이나 각도에 따라 발생하는 빛 반사에 방해받지 않고 화면 속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 전용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근육 운동 능력 장애로 화면 조작이 어려운 이들 역시 고급 음

성인식 기능과 자연어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

회사는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 35주년에 맞춰 지난달 미국 현지에서 이 제품을 최초 공개했다. ADA는 키오스크 제작시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이고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보조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제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시험평가기관인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에서 진행한 정보접근성 준수 시험평가를 통해 정식 검증을 완료하기도 했다.



LG전자가 연내 국내 출시할 2세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일동제약, 제약사 첫 비대면 진료 디지털사이니지 론칭

## 원격 진료부터 약국 선택, 처방전 수령까지 올인원 형태로 지원



일동제약 계열사 새로엠에스가 개발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새로닥터’.

일동제약그룹이 국내 제약사 처음으로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

현재 다수의 IT 관련 기업들이 무인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한 원격 진료 솔루션을 내놓고 있지만, 제약사 차원에서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함께 공급하며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처음이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계열사 새로엠에스가 개발한 ‘새로닥터’를 앞세워 의료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보급에 나선다. 공공·복지 의료 수요를 한발 먼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닥터는 대형 LCD화면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감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제품이다. 스마트폰이나 PC기반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

는 고령층을 고려해 대형 화면, 큰 글씨,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설계를 적용했다. 단순한 기기 공급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설치된 장소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원격 영상 진료가 가능하다.

키오스크 단말기를 활용해 진료과목과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고 진료 후 비용 결제, 약국 연계 처방전 전송 및 조제약 수령지(약국) 선택 등의 기능을 올

인원(all in one) 형태로 지원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말기 한 대로 진료와 약 수령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복지시설 이용자,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일동제약측은 이미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참여해 새로닥터 납품을 개시했다. 공공 협력 모델로 자리잡으면 전국 요양원, 복지관,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UV 평판 출력의 새로운 시대

세상에 없던 플랫폼, 11월에 공개 됩니다.



+23%

더 빠른 속도  
최대 341m<sup>2</sup>/h

10

컬러 채널  
제약 없는 가능성

1350 dpi

오늘의 탁월함, 내일의 기준  
변함없는 절대적 품질

100%

스위스 메이드  
궁극의 안정성

11월 데모 시연 초청회  
November in house party

Your local partner  
www.kostech.net

**KOSTECH**  
Korea System Technologies, Inc.

**swissprint**

High-End UV-LED printers  
Perform beyond the average  
www.swissprint.com

# 한울, 벽면 광고용 알루미늄 그래픽 시트 출시

고품질 출력 가능해 폭넓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능



한울의 알루미늄 시트를 활용해 제작된 광고물 모습.

한울이 고품질 그래픽 출력이 가능한 벽면용 알루미늄 시트 신제품 SKYTAC을 전개한다.

이 제품은 기존의 바닥용으로 활용되던 울퉁불퉁한 알루미늄 시트와 달리 표면이 매끈한 형태로 개발됐다. 따라서 그래픽 인쇄시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출력은 UV 프린터 또는 라텍스 프린터를 활용하면 된다.

한울측에 따르면 라텍스 프린터를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출력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며, 별도의 바닥 그래픽 시트와 함

께 설치할 때 전체적인 통일성을 구현하기에는 UV프린터로 출력하는 게 효과적이다.

매끈한 일반 실내 벽뿐 아니라 전봇대, 표현 요철이 심한 벽면, 계단, 콘크리트벽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좋은 색감을 구현하기 때문에 광고 및 안내용 제품 개발에 유용하다. 다만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뵈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 필히 벽면 전용으로 활용해야 하며, 바닥광고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폭 1,270mm의 단일 규격이며 30m 롤 단위로 판매된다.

### ▲시장성 높아진 고무자석 시트 신제품도 전개

최근 시장이 대폭 커지고 있는 고무자석 시트 신제품도 선보였다.

고무자석 시트는 최근 POP, 굿즈, 안내게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착·제거 과정이 매우 편한데다 다양한 광고물을 번갈아 사용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기존의 종이·필름 광고물 대신 고무자석 시트 광고를 사용하면서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울의 고무자석 시트는 표면에 고기능성 코팅 처리가 이뤄져 컬러 표현이 우수하고 고품질 그래픽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출력 후에도 잉크가 탈락하거나 스크래치가 잘 생기지 않아 내구성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평판 프린터뿐 아니라 일반적인 롤투를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시트의 자력은 사용이 쉽도록 일반 자석과 강력 자석의 중간 수준으로 개발됐다.

고무자석 시트 두께는 0.4mm 단일 규격이며, 폭 635mm와 1,210mm 2가지 사이즈로 개발됐다. 알루미늄 시트와 마찬가지로 30m 롤 단위로 판매된다.

신한중 기자

문의 : 010-2513-0594



한울의 고무자석 시트로 개발된 굿즈상품들.

# 엠볼트, 작업 편의성 높은 신형 'M2' 아크릴 재단기 공개

재단 폭 고정하는 멈춤장치 등 개선... 반복 작업 효율성 개선

엠볼트가 자사의 스테디셀러인 아크릴 재단기 'M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했다.

회사는 최근 아크릴 재단기 M2의 일부 기능을 리뉴얼하고 본격 마케팅에 나섰다. 신형 모델은 작업 속도와 정밀도면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M2 아크릴 재단기는 아크릴 판재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다. 대형 공장부터 협소한 작업실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장비 자체 사이즈는 콤팩트하지만, 접이식 보조 테이블이 장착돼 대형 판재도 쉽게 가공할 수 있다. 아래로 접혀있는 보조 테이블을 펼쳐 작업대의 사이즈를 대폭 확장시킬 수 있는데 확장시 4x8사이즈(1,200x2,400mm)의 대형 아크릴 원판도 안전하게 가공할 수 있다.

신형 제품에서 개선이 이뤄진 부분은 슬라이딩 가이드레일 부분이다. 재단 규격을 조정하는 'T'형 가이드레일에 정교한 눈금자를 적용하고 작업 영역을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멈춤장치를 새롭게 개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재단 영역을 정확하게 고정시켜 같은 규격을 반복적으로 재단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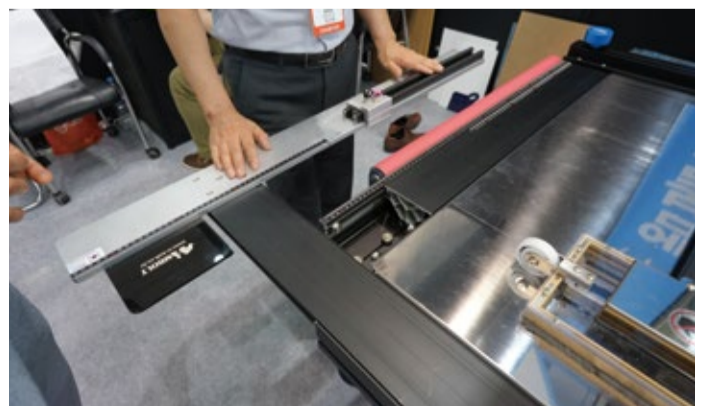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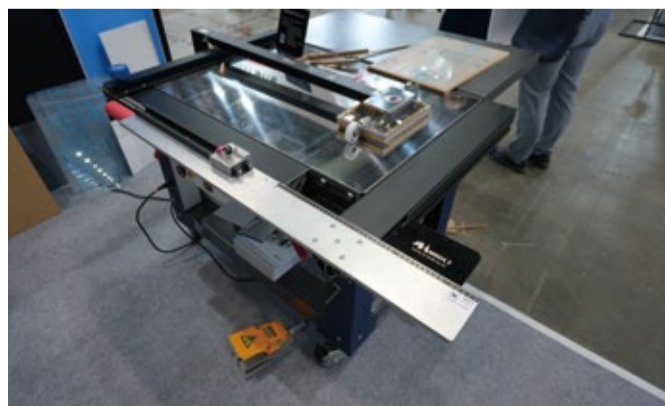
게 했다. 따라서 정교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작업이 가능하다.

가이드레일의 후면에 부드럽게 작동하는 롤러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이 롤러를 활용하면 크고 무거운 소재도 쉽게 작업대에 올리고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엠볼트 관계자는 "개선된 M2 아크릴

재단기는 전작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편의성 부분을 개선했다"며 "유저들의 사용 패턴을 세심하게 고려해 개선했기 때문에 사용해 보면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과 생산성까지 향상됐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031-999-6733



편의성과 안전 기능이 개선된 M2 아크릴 재단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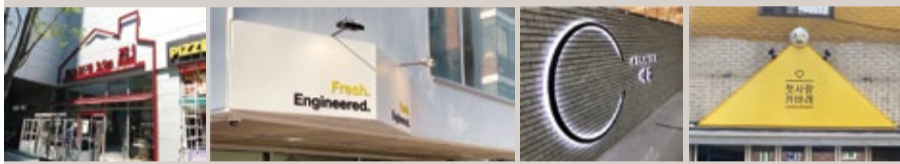
### 다양한 사인 제작/시공 노하우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준비된 유원광고기업이 함께합니다.”



### 맞춤형 공공사인 제작/시공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준비된 유원광고기업이 함께합니다.”



벌브채널 / LED채널간판 / 경관조명 / 각종 철 구조물 / 레이저 가공 / CNC 조각 제품 / 옥외용 시계탑 / 실사출력물 / 현수막

벌브채널 / LED채널간판 / 경관조명 / 각종 철 구조물 / 레이저 가공 / CNC 조각 제품 / 옥외용 시계탑 / 실사출력물 / 현수막



QR코드

간단한 현수막 설치와  
철거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게시, 철거  
3분 이내

현수막 게시대의 혁신,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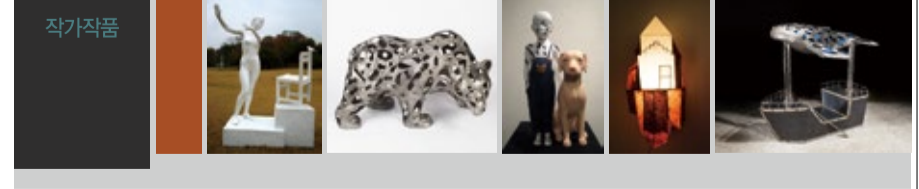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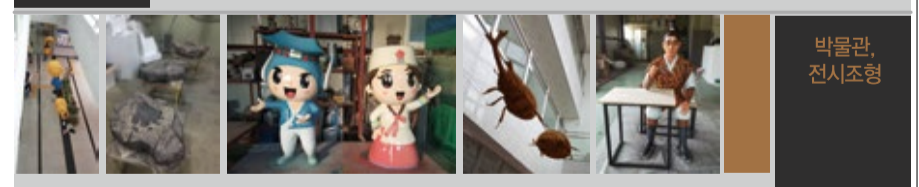
###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준비된 유원광고기업이 함께합니다.”



### 『맞춤형 조형물 제작/시공』

“높은 작품성과 축적된 기술로 가치를 높이는 조형 수연아트가 함께합니다.”



 (주)유원광고기업  
YU WON Co., Ltd.

홈페이지 · 이메일  
http://www.yuwon.kr  
ssm8425@naver.com

연락처  
TEL. 02-2692-8425 FAX. 02-2693-9466  
H.P 010-9852-84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5 (주)유원광고기업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리뷰

# 지역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GOOD!'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의 수상작이 지난 9월 3일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디자인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사례를 선정·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공공디자인 어

워드다. 올해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총 15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중 옥외광고 업계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일부 사례들을 소개한다.

신한중 기자



서초구 개방형 흡연시설.

**대통령상** 넛지 디자인 적용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수상자:** 서초구청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규모 길거리 흡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검증을 통해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흡연자 밀집 지역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개방형 시설임에도 에어커튼을 적용해 담배 연기의 외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제연 정화장치를 통해 공기를 정화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시흥시 정왕동의 '있기에, 앞서' 문화공간.

**문화체육부 장관상** 하수처리시설 개선한 '있기에, 앞서' 복합문화공간

**수상자:** 시흥시청, 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외

이 재생 문화공간은 기존 유휴 하수처리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다. 하수처리시설 특유의 원형 구조와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문화 수요에 맞춰 재구성했다. 오페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을 농축하는 농축조 5개 동과 이를 연결하는 분배조를 리모델링해 영화아트필름 촬영 스튜디오, 갤러리,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도를 상실한 유휴시설에 대한 모범적 태도를 제시하는 재생 프로젝트로 호평을 받았다.



시로 복원한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걸린 광고물.

**문화체육부 장관상** AI 활용한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

**수상자:** 국가보훈부, 빙그레 외

국가보훈부가 빙그레와 함께 전개한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은 AI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복원해 국민에게 보여준 광고다. 옥중에서 순국해 빛바랜 죄수복 차림의 마지막 사진으로만 기억되던 독립운동가 87명의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해 고운 한복을 입은 영웅의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사진들을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실제 한복을 영상기술로 입혀 재현했다. 복원된 사진과 영상은 주요 거리의 옥외광고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울산시청 앞 '스마트승강장 31109'의 모습.

**문화체육부 장관상** 기다림이 즐거운 '스마트승강장 31109'

**수상자:** 울산시청

울산시가 새로 조성한 버스승강장은 울산의 상징성을 보여주면서도 시민들의 안전·편의성을 높인 시설로 호평을 얻었다. 울산시청 앞에 설치된 이 승강장은 '고래의 고향'으로 불리는 울산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에 출몰하는 국제 보호종인 '귀신고래'의 유려한 모습을 형상화해 디자인됐다. 디자인 외에도 △버스 혼잡 완화 진입 구조 △광고시설 △교통정보 안내·무선충전·에어컨·온열 의자 등 편의 기능 등으로 거리 미관과 시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했다.

**한국공예디자인원장상**

**미끄럼 방지 탄소발열 그래픽시트**

**계단조성 사업**

**수상자:**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은행로 노후 계단에 설치된 탄소발열 그래픽시트.

성남시는 지난해 중원구 은행로 81번길 일대 골목길에 생활밀착형 안전디자인을 적용했다. 지역을 상징하는 황색 은행잎 그래픽을 활용해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 디자인을 적용했다.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했던 노후된 계단을 미끄럼 방지 기능과 세련된 그래픽이 적용된 탄소발열시트를 부착해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이 바닥시트는 넓고 어두운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겨울철 적설시 빠르게 눈을 녹일 수 있어 결빙 방지와 낙상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디자인융복합학회장상**

**더 쉽고, 더 편리한 인명구조구명환**

**수상자:** 용인시청

용인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하천 미관 개선을 위해 인명구조구명환과 시설안내판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시설을 개발, 설치했다. 기존 구명환의 복잡한 사용법을 개선하고 적은 힘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이 특징이다. 디자인 아이콘으로 사용법을 쉽게 표시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며, 기존 구명환을 사용할 때 필요했던 힘의 4분의 1만 써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게 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용인시청이 개발한 디자인 인명구조구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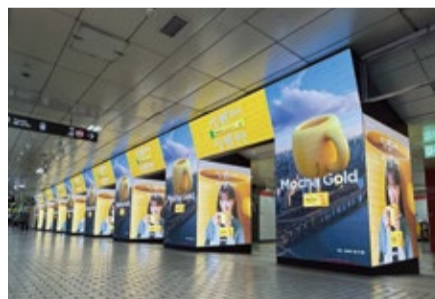
# 옥외광고의 모든것! '전홍'

1975년부터 우리는 도시의 흐름을 읽고,  
지하철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세상과 연결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도시의 맥박 위에 고객의 꿈을 실어 온 50년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우리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만족, 더 나은 우리의 꿈을 위해  
내일을 밝히며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기금 조성 옥외광고물

- 주요고속도로  
(인천공항, 경부, 중부, 서울양양)



### 지하철 1~8호선

- 공간활용 프로모션
- 디지털옥외광고 (DOOH)
- 성수역 프로모션(New! Media)



### 지하철 1~5호선

- LED 사각기둥 (PSP)
- 사각기둥 조명광고



### 지하철 2~3호선, 수도권 전동차

- 2호선 전동차내 광고
- 3호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 수도권 전동차내 광고

# 사인디피, 세련된 디자인의 '플레이트 입간판' 출시

T형 구조로 설치·보관 간편... 자석시트 광고 사용에도 최적



사인디피가 출시한 '플레이트 입간판'.



자석시트 광고물을 부착한 모습.

사인디피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적용된 '플레이트 입간판'을 선보였다.

플레이트 입간판은 넓고 견고한 스틸 소재 플레이트에 지지대를 T자로 연결

하는 구조를 통해 굳어지기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다. 두 개의 볼트를 통해 조립·분리가 간단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설치하는 물론 보관도 용이하다.

규격은 800×400mm이며, 하부 지지대의 사이즈는 400×395mm다. 화면부가 한 장의 플레이트로 이뤄져 슬림하면서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습기에 강한 분체 도장이 적용돼 실내는 물론, 실외에

서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2종으로 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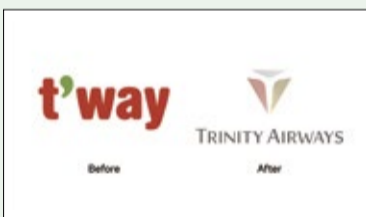
광고면은 400×760mm 이내의 점착시트를 부착하는 형태로 앞뒤 양쪽에 모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특히 평활도가 우수한 스틸 플레이트인 구조인 만큼 자석시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래픽이 적용된 다양한 자석시트를 다양하게 구비해 두면, 필요에 따라 손쉽게 광고 및 안내 이미지를 쉽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

사인디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플레이트 입간판은 아주 단순한 구조와 깔끔한 디자인을 통해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탈·부착이 간편한 자석시트 광고물을 사용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활용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사인디피 031-953-3091

## 간판 교체 뉴스

### 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 변경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CI를 공개했다.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새로운 사명 '트리니티'는 라틴어 'Trin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셋이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기존의 항공 사업과 숙박, 여행 3가지 영역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구조를 상징하는 명칭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활용한 신규 CI도 공개했다. 새 사명과 CI는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기 디자인과 서비스 매장 등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최초의 LCC로 2004년 운항을 시작했던 한성항공의 후신으로, 2010년 티웨이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운항을 시작했다. 이후 호텔·리조트 기업 대명소노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하면서 인수에 나섰고, 공정위로부터 지난 6월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 쏘카, BI 리뉴얼... 모빌리티 브랜드 정체성 강화



쏘카의 새 BI를 반영한 쏘카존 사이니지

카셰어링 기업 쏘카가 BI를 리뉴얼했다.

이번 BI 리뉴얼은 카셰어링 중심의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 BI는 기존 대문자(SOCAR)에서 소문자(socar)로 변경해 친밀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더했다. 컬러도 기존의 파란색에서 채도와 명도가 높아진 선명한 파란색으로 변경해 디지털 환경에서 가독성과 명시성을 높였다. 로고 타입과 별개로 쏘카를 상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볼을 개발했다. 길과 길이 만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심볼은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쏘카의 이니셜 'S'를 실루엣으로 표현했다.

쏘카는 새 BI를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이달부터 쏘카존 등 오프라인 거점에 순차적으로 BI 적용을 확대한다.

### 삼성물산, 갤럭시라이프스타일→ GLXY로 BI 변경



갤럭시라이프스타일의 신규 BI가 적용된 간판.

삼성물산이 자사가 운영하는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BI를 공개했다. 이번 BI 변경은 2010년 이후 15년만에 추진된 것으로, 도시형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성을 담았다.

새 BI는 기존의 긴 브랜드명을 'GLXY'로 줄여 단순·간결하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산세리프(sans serif) 서체를 사용해 보다 모던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주요 20여개 매장의 간판 등에 새 BI 적용이 완료됐으며, 올해 중에 모든 매장의 간판과 인테리어, 홍보물 등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연돈볼카츠, '연돈튀김덮밥'으로 간판 교체



연돈볼카츠를 리브랜딩한 '연돈튀김덮밥'의 간판.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를 '연돈튀김덮밥'으로 리브랜딩한다. 최근 여러 구설에 휘말리면서 신뢰성이 떨어진 연돈볼카츠를 도시락 전문 브랜드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30억원 규모의 전환 비용을 전폭 지원한다. 간판 교체를 비롯해 전국 옥외 광고, 디

지털 매체를 통한 광고 프로모션까지 본사 100% 부담으로 진행한다. 현재 22개 일반 로드숍 매장 중 77%인 17개 매장이 리브랜딩을 신청했으며,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간판 교체가 이뤄질 계획이다.



# 광고주의 매체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매체상담란에 매체판매정보를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H.P 010-3146-897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애드케이

서울마을버스광고  
(서울,경기)

02)333-6751 구미랑 팀장

## 화성이엔에이(주)

서울역광장 전광판, 명동 전광판, 신촌 전광판, 대구신세계백화점 외벽 전광판, 대구 범어네거리 전광판, 대구 동성로 전광판, 대구반월당역 터널전광판, 상인역 터널전광판, 대구국제공항 모든 광고물, 대구 지하철 1,2,3호선 80%소유, 대구시내버스 내부 전체 소유  
대표전화 : 053-766-2470  
정원중국장(010-3259-7539), 신준용팀장(010-4368-1111)



010-9254-9321

실리콘두께 창틀과 시트간격을조정하여컷터칼로 일정하게자르는도구  
사용용도:일정한선긋기,번팅후일정한 마감절단,강화도아 시트마감절단등

## 매체주를 모십니다

문의 : 010-3146-8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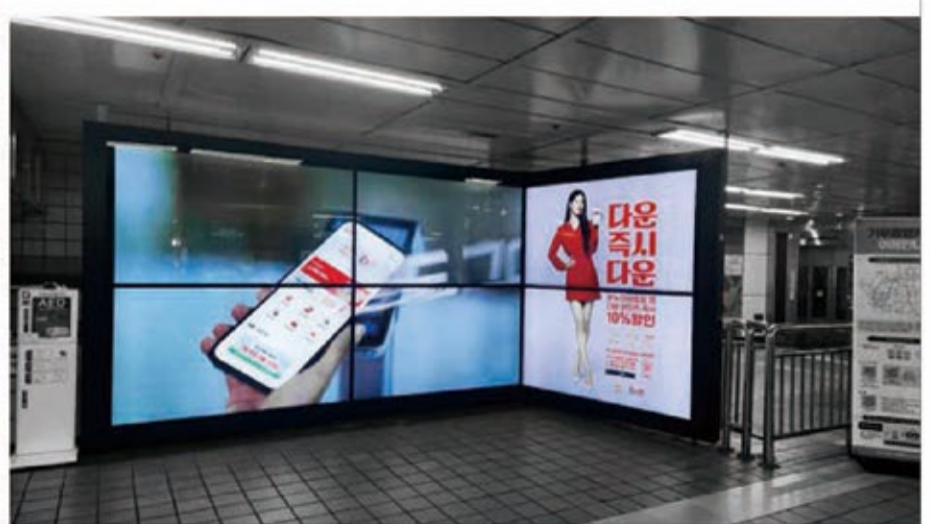
매일매일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 경기도 G BUS TV



경기도 내부영상광고

문의 | 02)780-0456  
010-5230-0306

애드박스 박준규 국장



## MAX VISION 맥스비전

서울지하철 1-4호선 승강장 및 대합실25개 역사 52개 스크린 동시송출

86인치 스크린 1type~6type 규격 (1구좌 / 일 120회 / 20초 기준)

광고예산에 맞는 다양한 상품패키지(Full / Harf / 선택역사, 개별역사)

파스텔미디어(주)

www.pastel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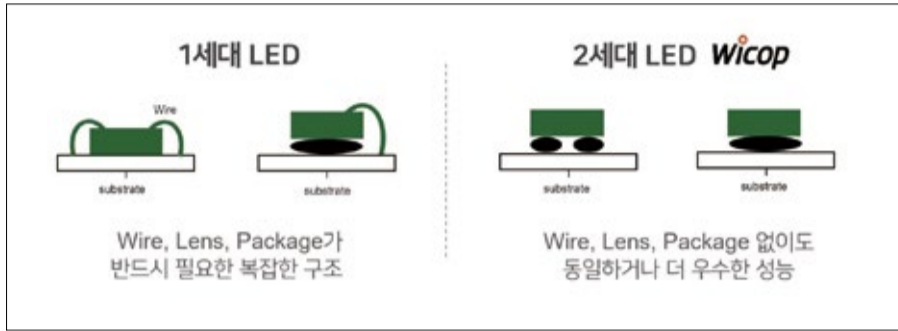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3 골든타워빌딩 1403~4호

[광고문의: 02-364-2585]



#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와의 기술유출 소송서 최종 승소

## 대법원, 에버라이트에 해외기업 기술탈취건중 최고액 벌금 선고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LED 기술 구조도.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기술 유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반도체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에버라이트에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에버라이트는 6,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영업기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6,000만원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 벌금액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사건 중 국내 최고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다.

에버라이트가 위반한 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 년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세 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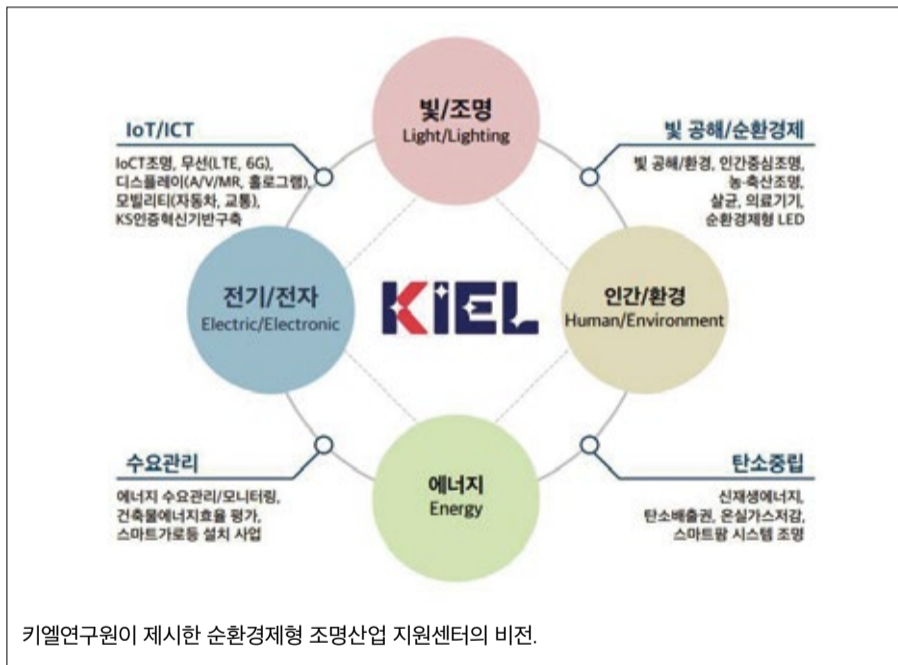
외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례라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법인까지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서울반도체측은 이번 판결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기술 탈취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 인천시,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 키엘연구원과 투자 협약 체결... 2028년까지 총 408억원 투자



키엘연구원이 제시한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의 비전.

인천시는 최근 조명기술 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관인 키엘연구원과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북부권역에 2028년까지 총 408억원을 투자해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를 신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센터 개원을 위한 투자 △인간 중심 조명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스마트 조명 탄소저감 실적 외부사업 추진 △지역 인력 채용 및 국가대표급 인적자원 육성 △지역 기업 시험평가 수수료 감면 및 기술고도화 지원 등이다.

센터는 페LED조명 제품 재활용과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AI 기반 인간 중심 조명(HCL) 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로 2028년 센터 설립 시점 기준 약 1,276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창출과 800명의 고용을 예상하며, 설립 후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약 5,160억원의 경제효과와 9,2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인천 북부권역을 첨단 조명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순환경제형 디지털 광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 인천아트플랫폼, 투명 LED디스플레이 미디어월 구축

## 동우화인켐이 현물 기부...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

인천의 복합문화센터 인천아트플랫폼이 투명 LED 미디어월을 구축했다. 12㎡ 규모의 미디어월은 건물 정면에 설치돼 미디어아트 전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 공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투명한 스크린 본연의 특징을 활용해 단순 미디어아

트 전시 외에 스크린 뒤편에 미술작품 실물을 전시하고 이 작품을 투명 스크린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된다. 또 투명 미디어월과 조형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 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미디어월은 동우화인켐이 자사가 개발한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

G-TLD로 제작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천문화재단에 현물 기부해 조성됐다. 동우화인켐측은 "G-TLD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새로운 기술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동우화인켐이 기부한 인천아트플랫폼 투명 LED 미디어월에서 미디어아트와 조형예술이 결합된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 전국 지자체 전자게시대 | 전자현수막

## 설치 및 유지관리 광고운영 전문회사



친환경·고효율 홍보매체

☎ 02-711-3737

전자현수막

문의 ☎ 1533-0570

### 무엇이 다를까요?



높은 시인성



주야간 광고노출



효율적인 운영관리



탁월한 광고효과



공간 최적화



환경친화적인 광고

📍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4길 3

🏠 www.한성디자인.com

✉ banner114@hanmail.net

문의전화

☎ 1533-0570

☎ 02-711-3737

사인이 있는 풍경 -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베이커리 카페



경기도 평택항 인근에 소재한 '메인스트리트' 외부 전경.



1970년대 뉴욕의 풍경을 실내외 곳곳에 그래피티와 래핑을 통해 재현했다. 실내 바닥에 그려진 횡단보도까지 깨알같은 감성을 보여준다.

# 1970년대 뉴욕의 감성 재현한 독특한 외식 공간

## 뉴욕 다운타운의 사인 시설을 멋지게 재해석한 간판·POP들도 '눈길'

하늘높이 솟은 빌딩들, 좁은 길을 돌아다니는 노란 택시, 곳곳에 세워진 대형 'I ♥ NY' 조형물... 뉴욕을 생각하면 으레 떠오르는 이미지다.

서해바다 평택항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베이커리 카페 '메인스트리트'는 이런 미국 뉴욕 다운타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공간이다.

'메인스트리트'는 원래 뉴욕 다운타운 핵심 도로의 명칭이다. 이 카페는 뉴욕의 20여개 주요 거리의 모습을 콘셉트로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카페의 상호도 메인스트리트로 지었다. 규모도 보통이 아니다. 지상 1~4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주차장을 제외한 대지면적만 2,975㎡에 이른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빨간색 프레임에 노란색 글씨로 'PARKING(주차)'이라고 적힌 벌브형 간판을 볼 수 있는데, 뉴욕 배경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그 간판이라 도착하는 순간부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건물 벽면에는 뉴욕 맨해튼 광경을 담은 대형 그래피티가 곳곳에 그려져 있다. 초고층 건물과 비오는 거리를 달리는 노란색 택시, 음식점이 있는 거리들이 입체감있게 표현돼 있다. 이 래핑 이미지는 포토존으로 유명한데, 카메라 각도만 잘 잡으면 실제 뉴욕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내부에 들어가면 먼저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모습이 펼쳐진다. LED간판이 달린 철문은 뉴욕 '타임스퀘어 스테이션'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온 모습이다. 시설안내 사인 또한 뉴욕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종이 노선도의 모습을 재현했다.

1층 실내 벽면은 수십 개의 빛나는 LED광고판으로 장식된 화려한 타임스퀘어 야경이 래핑돼 있다. 실사출력 이미지 속에서 LED광고판 부분만 실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뉴욕 지하철의 시설을 옮겨온 듯한 출입문 간판과 시설안내 사인의 모습.



윗층으로 올라가면 1970년대 뉴욕 LP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팝스트리트(POP STREET)'가 나온다. 벽 곳곳에 붙은 미국적인 포스터와 맥주병으로 꾸민 조명이 웨스턴 분위기를 연출한다. 빨간색의 공중전화 부스와 총기 소지 금지표지도 붙여 있어서 부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외에도 메인 포토존으로 사용되는 '그래피티 힐(GRAFFITI HILL)', 무채색 그림으로 공간을 꾸민 '2D 카페(2D CAFE)', 컨테이너 소재로 꾸며진

'컨테이너 존(CONTAINER ZONE)' 등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다.

공간 전체가 실사출력 래핑과 그래피티 등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사인물들의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다. 스텐실 사인과 오렌지 차량 번호판 등의 소재를 활용한 빈티지 사인, LED벌브 사인, 깃발 현수막 등 뉴욕 현지에서 볼법한 다양한 사인물들의 모습을 멋지게 재해석한 이 사인시설들은 뉴욕 감성을 상기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신한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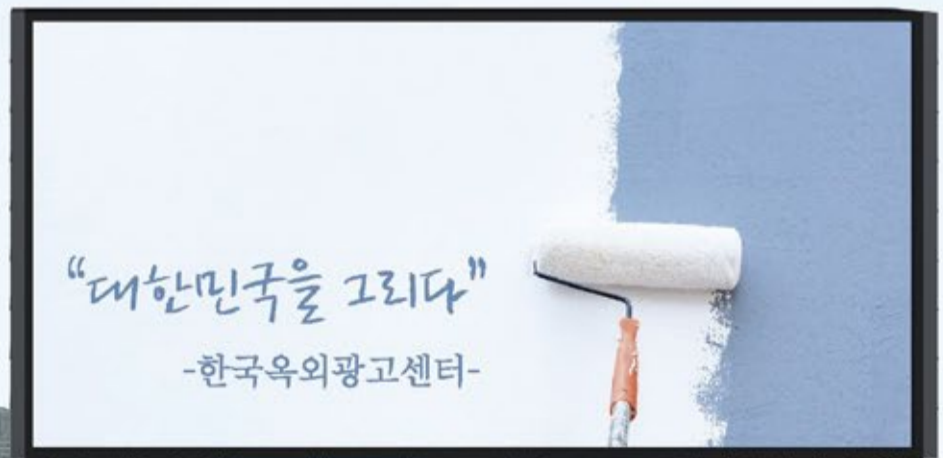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실내외 광고물들.



www.ooh.or.kr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은  
국제행사와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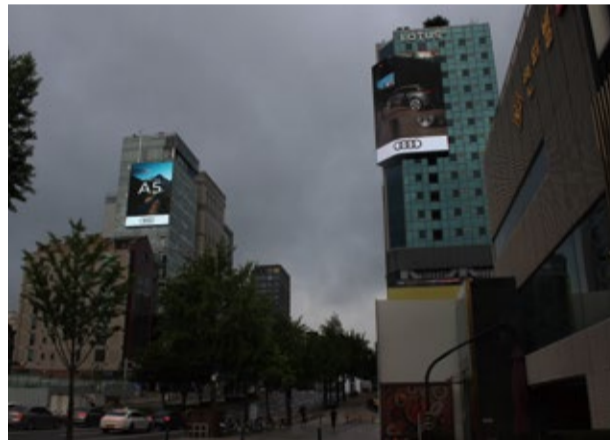
주호일의 옥외광고 에세이 - 오십 두번째 이야기

지속가능한 옥외광고 이야기\_다매체 시대의 경쟁력 확보 전략(part 2)

브랜드 인식을 위한 조닝(zoning)과 SOV(Share of Voice) 전략



지하철 전동차내 편성열차의 광고집행 사례.



서울 강남 도산대로의 옴포리아빌딩과 썬앤빌딩 전광판의 싱크 패키지 광고.

명동스퀘어에 위치한 전광판들의 싱크 패키지 시뮬레이션.

지난 9월 5일 광화문 KT스퀘어(대형 전광판)의 오픈 세레머니가 있었다.

2기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명동과 광화문의 빅5 열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0월 동아일보 사옥의 'LUUX'와 매일경제의 교원내외빌딩 'M-CITY'가 점등을 하면 명동과 광화문 일대가 하나의 대형 전광판 존으로 형성된다. 대형 전광판간의 광고주 유치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 225m2 규격 광판들과의 경쟁 또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생태학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적소이론'을 매체환경에 적용하면, 각 매체들은 사회적 환경과 광고시장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개별 매체들은 적합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경합을 또한 벌여야 한다. 이는 매체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광고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결국 피할 수 없는 매체간 경쟁 상황 속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처럼 광고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매체들은 도태할 수도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매체간 경쟁과 함께 매체간 전략적 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물론 광고주의 미디어 전략에도 전략적 변화와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광고주의 매체 전략중 특정구역 내 매체들을 집중해서 활용하는 전략들이 눈에 띈다. 디지털 매체의 SOV(Share of voice) 확보를 위해 다구좌 전략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장소에서의 다매체 전략은 또 다른 'SOV 확보' 전략이다. 과거 광고 '조닝(Zoning)'으로 명명했던 매체 운영전략을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 확대된 매체 운영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통적 교통광고인 지하철 광고도 스마트폰과의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브랜드 트레인(Brand Train)'으로 명명했던 편성열차는 SOV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매체들도 위치적 특성을 활용하여 구좌제에 따른 SOV 한계에 대응할만한 합종연횡을 추진하고 있다. 매체 간 동시 송출(sync) 전략으로 1기 코엑스 KPOP 중심의 싱크 패키지 집행이 대표적이다.

도산대로의 옴포리아 전광판과 건너편 썬앤빌 전광판도 상반기 특정시간(정시, 반시)을 활용한 동시 송출 캠페인을 진행했다.

2기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의 명동스퀘어에서도 교원내외빌딩(M-CITY)과 주변 매체(경기빌딩, 한국빌딩, N빌딩, 롯데백화점)와 연계한 싱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꿈꾸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1기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의 싱크 패키지를 뛰어넘을 을지로입구의 파워패키지(Power package/가칭)가 대한민국 NO.1 조닝(zoning)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확대된 SOV(Share of voice) 확보를 강력한 차별적 경쟁 전략으로 제안해 본다.



주호일

매일경제신문 옥외광고 팀장  
평택대 겸임교수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iClickart  
www.iclickart.co.kr

It's  
superfantastic!



**아이클릭아트 회원제 서비스 특징**

저작권이 확보된 다양한 디자인 소스 제공 일러스트, 포토, 클립아트 등의 이미지소스부터 배너템플릿, 웹 템플릿, 편집이미지, 파워포인트 템플릿 등의 템플릿 소스까지 40만여 컷에 달하는 저작권이 확보된 디자인 소스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트렌드에 민감한 디자이너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신선한 콘텐츠를 다양한 테마로 1,000여 컷 이상 매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 가입 을 80%의 최다 회원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지난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이미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CD 1장, 이미지 1컷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가입으로 추가 비용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원하는 이미지를 언제든지 바로 바로 다운 받아 쓸 수 있고 컷 수 에 제한 없이 무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다 강력해진 검색 인덱스** 각 파일 타입 별 카테고리 검색 및 콘텐츠 별 동일 스타일 검색, 이미지다이어리를 통한 월별 테마 이미지 검색 기능의 지원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만 여 컷의 무료이미지 제공** 무료회원 가입만으로도 3만여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 컷 구매 가능** 소량의 콘텐츠만 필요할 경우 1컷에서 5컷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컷 수 대로 구매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클릭아트 고객센터 1666-3571**

아크릴 재단기



아크릴 재단기 M2

- 아크릴 PC 포맥스 MDF 합판 PVC 하나의 톨날로 재단 가능
- 1220mm x 2440mm (4' x 8') 원장 최대 두께 30 T(mm) 재단 가능
- 집진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엠블트 아크릴 재단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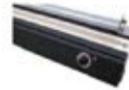
아크릴 가공기계



아크릴 면취기 M7



아크릴 절곡기 M12



▶ 엠블트 아크릴 장비 🔍

시트지, 폼보드 평판 커팅기



- 작업영역 최대 3000 x 3000 주문 제작 가능
- 시트지, 폼보드, 얇은 포맥스 페트지, 가죽, 박스지 재단
- 평판지그로 동일 사이즈 반복재단

▶ 레일베이스 평판 🔍



문의 전화 031-999-6733



엠블트

성형사인 / 메폭시사인 / 아크릴사인

간판프레임 | 채널문자 | 실물가공  
메폭시 채널용 V커팅기 | 성형장비 설비 제작

www.gssign.net



거성산업

TEL. 대표 031)968-7093 FAX. 031)968-7095  
계좌 : 농협 217043-52-014926 (예금주)송무경  
웹하드 ID. liza77 PW.123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석사동 254-8번지

디지털매체, 유튜브 콘텐츠, 기업 브랜딩·행사, 미디어아트 영상 기획&제작

CREATIVE VISUAL

영상 제작의 모든것 그림형제플러스

김형제  
(주)그림형제플러스

견적문의 010-3742-9026

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8길 20 3층

# LED

KOREASIGN

# 전광판은 코리아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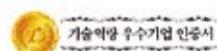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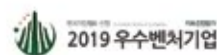
WWW.koreasign.co.kr



| 주 | 코리아싸인

T : 031-924-047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82-14



# [ 엘씨기획 ]

특수 채널 전문

## 엘씨기획 제품 라인업

에폭시전광 / 에폭시전후광 / 3D채널 / 갈바채널 / 스텐채널 / 골드스텐채널  
아크릴면발광 / 일반캡채널 / 캡채널전후광 / 일체형전광 / 일체형전후광



에폭시전광



에폭시전후광



3D에폭시



갈바후광



스텐후광



골드스텐후광



아크릴면발광



일체형



캡채널전후광

### < 채널 제작 및 견적 문의 >

견적 문의 010-3689-1883 / 010-7609-1883

이메일 lcsign@daum.net

웹하드 ID: lcsign / PW: 1234

### 전체 채널 단가표 확인하기

